



부실주차자신차량에 치여 숨져

23일 오전 8시40분께 구례군 산동면의 한 내리막길에 정차 중이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미끄러지면서 이차 운전자인 김모(48·여)씨가 치여 숨졌다.

요양보호사인 김씨는 차량을 잠시 정차하고 내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은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용기한 3년 넘긴 우황으로 청심환 제조 제약사 대표 입건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은 사용기한이 지난 우황으로 청심환을 만들어 판 H제약 대표 한모(53)씨 등 4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입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 등은 지난해 11월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제조공장에서 사용기한이 3년 지난 우황을 사용해 청심환을 만들어 '우황청심환', '원방 우황청심환'이라는 이름으로 100알 들어 64개와 51개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제품은 모두 2천800만원 상당으로 성분은 검사한 결과 우황의 주성분인 '결합형 빌리루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지방청은 전했다.



조문하는 장병들 23일 오후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으로 숨진 장병들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군 장병들이 고인들에게 경례하고 있다.

“그렇게 착한 김하사가 어쩌다가...”

“어쩌다가 그 착한 사람이... 어쩌다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얼마전 SNS에 군인이 글을 올렸다.

내용은 '유격훈련, 비도 오고~ 즐겁게 가자!' 였다. 그는 이글을 올리고 아버지와 동생들이 있는 곡성에서 끝맛 같은 나흘간의 달콤한 휴가를 보냈다. 그리고는 다시 그의 글에서처럼 즐겁게 부대로 복귀했다. 꿈이 많았고 다정했으며 가난한 집안의 맏이지만 늘 씩씩했던 청년, 바로 최전방 GOP 총기난사 사건의 사망자 5명 중 1명인 김모(23) 하사였다.

광주가 고향인 김 하사는 지난 1997년 부모님을 따라 곡성에 내려왔다.

곡성에는 특별한 연고가 없었으나 가난한 김 하사의 가족이 살기에는 정도 많고 오붓한 곳이었다.

무엇보다 장에 2급인 남동생이 활발하게 뛰어놀수 있는 곳이어서 가족들도 만족해했다. 특히 2010년 어머니가 암으로 사망하자 장

●GOP 총기난사 사건 곡성 출신 '김 하사' 안타까운 죽음

“불과 나흘전 휴가 나왔는데” 곡성군수 당선자 애도 기초생활수급자 아학지도 '동네 후배들 든든한 멘토'

남이던 김 하사는 슬픔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정신적으로 강해졌고 이후 전남과학대 호텔조리 김치발효과를 졸업한뒤 2012년 여름 부산으로 입대했다. 집에 부담을 주지 않고 또 돈을 벌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입대 당시 김 하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무하는 동안 꾸준히 적금을 넣어 돈을 모은 뒤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것”이라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 했다.

군대에 가서도 그는 성실하게 복무했다. 김 하사가 살았던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그가 휴가 나와서 “군대가 체질에 맞아 참 좋다. 열심히 해보고 싶으며 자주 웃곤

했다”고 말했다. 또 그가 어렸을 때부터 무척이나 착하고 성실하며 많이 안타까워 했다.

실제로 김 하사는 입대 하기 전 곡성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기도 했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에서 자랐지만 더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사회복지를 공부했고 동네 후배들에게 든든한 멘토였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몰려야 할 동생이 셋이나 있었지만 틈틈이 자원봉사나 농활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남을 돕는 데 앞장섰다.

그가 지역아동센터에 봉사자로 지원할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보면 “우리보다 생활력이 약한 사람이 있으니 항상 감사하며 살고 어떤 일든 우직하게 하리”던 돌

아가신 어머니의 말을 늘 가슴에 품고 있다. 생색내는 사회봉사가 아닌 삶에서 묻어나는 사회복지를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랜시간 만나 사랑을 키워온 여자친구하고도 아름다운 미래를 꿈꿨던 가난했지만 꿈과 희망을 갖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대한민국의 청년이자 군인이었다.

그에 대해 박경희 곡성지역아동센터장은 “사병들이 김 하사를 잘 따라 조인도 구하고 고민도 털어놓는다고 했다”며 “그렇게 군대를 좋아하던 애가 이렇게 떠날 줄은 몰랐다”며 울먹였다.

한편, 곡성군에서는 군청문화센터에 김 하사의 분향소를 설치했다. 김 하사의 아버지가 부탁한 것이다.

유근기 곡성군수 당선인은 “자식을 키우는 처지에서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며 “분향소 설치 등 사고 수습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icepoem@kdaily.com /곡성=안용식 기자

요양병원 '얼렁뚱땅' 안전점검 보건소 직원 2명 영장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안전점검을 허술히 한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23일 불이 난 효실천 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 현장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이모(50·여)씨 등 장성군 보건소 직원 2명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불이 나기 1주일 전인 지난달 21일 현장 점검에서 소방장비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

고 '이상 없음'으로 점검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같은 날 오전 10시께부터 장성 지역 5개 병원을 '몰아치기'로 허술하게 점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점검은 세월호 침몰 이후 중앙 정부의 지침을 받은 전남도의 지시로 이뤄졌다.

이씨 등의 구속 여부는 24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의 영장 실질심사 이

후 결정된다. 효사랑 요양병원에서는 지난달 28일 새벽 불이 나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고, 다른 환자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 병원의 실질 이사장과 행정원장 등 형체를 구속하고 침몰 이후 중앙 정부의 지침을 받은 전남도의 지시로 이뤄졌다. 이씨 등의 구속 여부는 24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의 영장 실질심사 이

실종자 수색 15일째 무소식

세월호 수중 수색활동 계속

세월호 참사 69일째인 23일 민관 합동수색팀이 전날부터 진행된 수색에서 실종자를 수습하지 못했다. 지난 8일 이후 15일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정부사고대책본부는 전날 정오 시간 전후인 오전 8시20분부터 10시28분까지, 밤 10시부터 23일 0시16분까지 수중수색을 실시하였으나 추가로 희생자를 수습하지는 못했다.

두 차례 수색에서 총 34회 68명을 투입, 3층 로비, 4층 중앙 격실·선미 다인실, 5층 선수 격실 등의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정밀 수색을 진행했다. 구조팀은 안내실 수색,

장애물 제거 작업, 가이드라인 재설치 작업을 진행하며 4층 선수 격실에서 여행용 캐리어, 가방, 외투상의 등을 수거했다.

민관 합동수색팀은 이날 125명을 투입, 3층 로비, 4층 선수 중앙 격실과 선미 다인실, 5층 선수 좌현 격실 등에 대한 장애물 제거와 수색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민관 합동수색팀은 장마철 등 기상변동에 대비해 수색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실종자 가족들이 장마철·태풍 등 기상악화에 대비한 유실방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희생자 유실방지 테스크포스(TF)회의에서는 추가대책을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유병언 부인 배임 혐의 구속영장 청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희중 2차장검사)은 23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부인인 권운자(7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유씨 친인척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유씨의 차남 권오균(64) 트라이콘코리아 대표, 유씨의 형 따라 조인도 구하고 고민도 털어놓는다고 했다”며 “그렇게 군대를 좋아하던 애가 이렇게 떠날 줄은 몰랐다”며 울먹였다.

앞서 검찰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합동검거팀은 지난 2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권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또 권씨를 수행했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회) 여신도 조모(71)씨와 김모(62)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청해진해

운 관계사 중 하나인 대구 소재 방문판매 회사 '달구벌'의 대표를 맡으면서 남편 유씨와 장남 대균(44)씨 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22일부터 권씨도 함께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경기도 금수원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종적을 감췄다. 휴대전화를 꺼놓고 수시로 거주지를 옮겨다니며 검경의 추적을 피해왔다.

한편 검찰은 전남 오후 대구 수성구 자택에서 체포한 유씨 동생 병호(62)씨에 대해서도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병호씨는 2008년께 구원회 소유 영농조합법인인 내세워 유씨 일가 계열사인 세모로부터 30억원을 빌린 뒤 부동산 투기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서 비브리오패혈증 의심환자 발생

전남 지역에서 올해 두 번째로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했다.

23일 목포시 보건소에 따르면 A(56)씨가 복통과 고열 등 비브리오패혈증 증상을 보여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복통 등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하고 나서 이튿날 증세가 나빠져

다른 병원을 거쳐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 당국은 가검물 등을 검사해 정확한 진단을 내릴 방침이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신안에서 울타리 마을에서 비브리오패혈증 의심환자가 발생했지만, 확진 판정 사례는 아직 없다고 보건소는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현명한 소비자께서 선택하신 최고의 제품/7년연속 국내 농산물건조기 판매 1위

인공지능 자동 농산물건조기 및 건조·냉장·냉동 겸용

농협장기저리용자 1년거치, 7년 분할상환, 연3%

채반 11개 채반 22개 채반 33개 건조·냉장·냉동겸용

인공지능 건조기 및 냉장 겸용 컨트롤러
인공지능 컨트롤러에 의한 전자제어 방식으로 작동이 편리함

자동배출조절기
건조기 사용시에는 습기 배출구가 자동으로 열리고 냉정기능으로 사용시에는 자동으로 조절되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건조선반
인체공학적인 설계의 건조선반과 수납이 편리한 경량화면 채반

송풍모터
고효율의 저소음 모터 사용으로 전기료 낭비를 최소화

제품특징

대리점·취급점 영업사원 딜러모집

유사인증 경험자 우대

▶ 농산물 전기건조기 사용용도 칸칸 독립건조 및 저온저장실 기능 손실이 없는 고밀도 폴리우레탄 발포 단열재

농산물: 고추, 꽃감, 대추, 인삼, 무, 녹차, 약초 등
수산물: 멸치, 미역, 새우, 김, 다시마, 오징어, 쥐포 등
2차가공식품: 청국장, 매주, 이류식, 마카로니 등

칸칸으로 건조실과 저온저장실을 동시에 또는 각각 사용가능하므로 건조용량 및 저장량에 따라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여 연료비가 절감됩니다.

기존 제품의 판별 조립식보다 최고의 단열성능을 가진 최고급 폴리우레탄 일체 발포 열순실을 최소화하여 낭비되는 연료를 절감하였습니다.

DS 대성에너지 TEL 1599-9575 H-P 010-9468-3282

포장이사 || 일반이사 || 보관이사 || 사무실 이전

통인이사 고객님의 드리는 통인의 특별한 혜택!

입계 최초 에이프런 서비스 제공

이사 후 한 번 더 방문하여 만족할 때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알리지 클리닝(침대 및 침구류 2개) 서비스
- 장롱 안 커튼 오존 살균/탈취(안방, 자녀방)
- 침대 밑 바닥 먼지제거 및 살균/소독
- 삼성카드로 결제시 50만원까지 현금 대신 선포인트로 결제 가능
- 오존 살균(방 2개) 서비스(새집 증후군)

대표 전화 **1577-6614** ☎. 062)962-0014 H. 010-3936-2424